

‘괴물’이 돌아왔다

LA 류현진,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4승’...부상 복귀 후 최고 피칭

‘괴물’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좌완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1피안타 경기로 치르며 시즌 4승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7일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단 하나의 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아 다저스의 8-0 승리를 이끌었다.

96개의 공을 던져 사사구 없이 삼진은 8개나 빼앗았다. 속구에 커터,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며 메츠 타선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등판 경기에서 1안타로 1출루만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이은 두 경기 연속 7이닝 무실점, 지난달 25일 미네소타 트윈스전 5회부터는 15연속 무실점 행진도 보였다.

류현진은 타석에는 세 차례 들어서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다.

6월 23일 홈 경기(5이닝 2실점)에 이어 다시 메츠 앞에 선 류현진은 당시 선발 대결한 좌완 스티븐 매츠와 리턴 매치를 치렀다.

류현진은 3-0의 리드를 안고 마운드에 올랐다. 다저스 타선이 1회초 2사 후 로건 포사이드의 2타점 중전 적시타와 오스틴 반스의 좌익수 쪽 2루타로 석 점을 뽑아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모처럼 타선의 지원을 등에 업은 류현진은 1회말 세 타자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공격적인 투구로 산뜻하게 시즌 4승 사냥을 시작했다. 류현진이 1회를 삼진으로만 삼자범퇴 처리한 것은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이다.

류현진은 2회 첫 타자 월머 플로레스까지 148km의 빠른 볼로 루킹 삼진을 잡는 등 네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다. 이후 두 타자는 외야 뜬 공으로 요리했다.

다저스는 3회초 다저스 저스틴 터너의 우중월 투런으로 류현진에게 더욱 힘을 실어줬다.

류현진은 3회말 첫 타자 트레비스 다노에게 우전안타를 맞아 처음 출루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후 메츠 최고의 유망주 아메드 로사리오에게 주 무기인 체인지업, 보내기번트에 실패한 투수 매츠에게 커브를 던져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콘포트는 2루수 로건 포사이드의 호수비로 땅볼 아웃시켰다.

4회에도 카브레라를 3구 삼진으로 잡고 이후 두 타자는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는 등 류현진의 위력투가 계속됐다. 5회에도 삼진 하나를 추가하며 간단히 세 타자만 상대했다. 6회 역시 공 다섯 개로 삼자범퇴로 끝났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뉴욕 메츠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경기에서 1회말 다저스의 류현진이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뎅이’ 일어섰다

김인경 LPGA 브리티시 오픈 우승...5년 전 ‘메이저 준우승’ 한풀이

‘오뎅이’ 김인경(29)이 5년 묵은 메이저 컵의 한을 마침내 풀었다.

김인경은 6일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킹스반스 골프 링크스(파72·6697야드)에서 열린 브리티시 여자오픈 골프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정상에 올랐다.

2위 조디 유와트 새도프(잉글랜드)를 2타차로 따돌린 김인경은 시즌 세번째 우승으로 다승 1위에 나서며 2위의 전성기 도래를 알렸다.

김인경은 6년 동안 우승과 인연이 없다가 작년 레인우드 클래식에서 이어 올해 슈퍼라이트 클래식, 마라톤 클래식과 브리티시여자오픈까지 2시즌에 4승을 쓸어 담았다. 우승 상금으로 50만4821 달러(약 5억 6842만원)를 받은 김인경은 시즌 상금이 108만5893달러로 늘어나 2013년 이후 4년 만에 시즌 상금 100만 달러 클럽에 복귀했다.

김인경은 특히 개인 통산 7번째 우승을 그토록 원하던 메이저대회에 올려 기쁨이 더했다.

김인경은 “아무래도 선물 받은 기분”이라며 “응원해주신 분이 많아서 부담을 받았는데 그런 걸 좀 이겨내니까 우승하게 되고 또 우승 몇 번 하니까 메이저대회 우승도 했다” 소감을 밝혔다.

김인경은 우승을 예상했느냐고 묻자 “경기 시작 전에 많은 분이 우승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아빠도 잘하면 좋은 성적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나라도 나 자신한테 ‘우승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경기했더니 떨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인경은 2012년 당시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현 ANA 인스퍼레이션) 최종 라운드 18번홀에서 30cm 우승 퍼트를 놓쳐 메이저대회 첫 우승 기회를 날린 아픔을 씻어냈다.

김인경은 우승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그때 짧은 퍼트를 놓친 덕에 이제는 짧은 퍼트는 거의 놓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김인경의 우승으로 이번 시즌 한국 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수집한 트로피는 12개로 늘었다. 2015년에 세운 최다승 기록(15승) 경신에 녹색 신호등을 켜다. 메이저대회에서만 한국 선수가 3승이나 쓸어담아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시즌 4승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김인경과 같은 한화 그룹 후원을 받는 신지은이 5언더파 67타를 때려 6위(12언더파 276타)를 차지했다. 신지은은 올해 메이저대회에서 처음 톱10에 입성했다.



김인경이 6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킹스반스 골프 링크스에서 막내린 브리티시 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이 확정된 뒤 두 팔을 뻗고 있다. /연합뉴스

순위 싸움보다 더한 ‘거리 싸움’ 이겨라

T 타이거즈 전망대

9월 17일까지 2연전...한 주에 세 팀씩 홈→수원→홈 일정...체력 안배가 관건

프로야구 순위 싸움의 향방을 가를 ‘이동 전쟁’이 시작된다.

8일부터 각 구단의 발걸이 분주해진다. 3연전으로 진행되던 프로야구가 오는 9월 17일까지 2연전 일정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한 주에 3개 팀과 대결을 하게 되면서 각 팀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10개 구단은 한 시즌에 팀당 16차전씩 144경기를 치른다. 홈 8경기, 원정 8경기를 소화하기 위해 3연전 이후 2연전이라는 고육지책이 도입됐다.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전국을 돌게 되면서 2연전을 앞둔 각 구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동 거리가 상당한 지방팀에 특히 부담스러운 2연전이다.

시즌이 막바지로 가면서 크고 작은 부상 이 각 팀의 고민이 되고 있다. 여기에 2연전으로 인한 체력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순위 싸움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1위 KIA 타이거즈의 2연전 초반 일정

은 나쁘지 않다.

8·9일 넥센 히어로즈와 홈 경기를 치른 KIA는 9일 경기가 끝난 뒤 수원으로 올라가 kt와 경기를 준비한다. 그리고 11일 다시 집을 쟁겨 광주로 내려와 12·13일 LG를 만난다.

2연전 두 번째 주도 홈(NC)-잠실(두산)-홈(SK) 경기 일정이다. 하지만 이후가 고비다. 롯데와 22·23일 홈경기를 치른 뒤 대전으로 가 한화를 만나며 KIA는 마산(26·27일)에서 주말을 보낸다. 그리고 이동 거리를 고려해 광주 복귀 없이 곧장 대구로 이동해 29·30일 원정을 준비할 전망이다. 23일 밤 광주를 떠나 30일 밤에 돌아오는 원정 강행군이다.

31일과 9월 1일 ‘난적’ 두산과의 홈경기 이후 일정은 고척 원정(9월 2·3일)이다. 휴식일 이후 9월 5·6일 LG 원정이 기다리면 선수단은 2주 연속 타지에서 휴식일을 보내게 될 예정이다. 9월 7-10일까지는 모

처럼 한화·삼성과의 홈 4연전.

마지막 2연전 일정이 가장 험난하다. 문학으로 올라가 9월 12·13일 경기를 치르는 KIA는 400km를 거슬러 내려와 사직에서 롯데와 2연전을 갖는다.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와 kt와 2연전 마지막 대결을 한다. 2연전 마지막 주 이동 거리는 무려 1000km에 이른다.

두산의 무서운 연속 행진 속, 2연전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상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KIA는 임기영을 선발로 내세워 넥센과의 2연전 일정을 시작한다. 트레이드 이후 처음 만나는 두 팀의 대결, 임기영의 후반기 첫 승과 김세현의 출격에 눈길이 쏠린다.

전반기 마운드의 깜짝 스타였던 임기영은 주 무기인 체인지업의 예리함이 떨어지면서 고전하고 있다. 후반기 3경기 평균자책점은 9.42로 2패만 기록하고 있다. 비로

■2017 KBO리그 팀순위 <7월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101	65	1	35	0.650	0.0
2	NC	102	60	1	41	0.594	5.5
3	두산	100	57	2	41	0.582	7.0
4	LG	99	52	1	46	0.531	12.0
5	넥센	104	54	1	49	0.524	12.5
6	SK	106	52	1	53	0.495	15.5
7	롯데	103	50	2	51	0.495	15.5
8	삼성	105	41	4	60	0.406	24.5
9	한화	101	40	1	60	0.400	25.0
10	kt	101	33	0	68	0.327	32.5

6일 경기가 우천취소되면서 이틀을 더 기다린 임기영이 후반기 첫 승을 겨냥한다.

‘깜짝 트레이드’를 통해 유니폼을 갈아입은 김세현도 처음 진정을 상대로 마운드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주 비로 두 경기를 쉬어가면서 김세현은 한 차례 등판으로 몸을 푸는 데 그쳤다. 성적은 1이닝 2피안타 무실점. 안타 두 개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1이닝을 마무리하면서 KIA 데뷔전을 끝냈다.

“KIA 유니폼을 입고 처음 등판한 거라 긴장이 많이 됐다. 내 스타일대로 빠른 공 위주로 던졌다”고 첫 등판 소감을 밝혔던 김세현이 진정을 상대로 어떤 공을 던질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

김국영 이어, 이번엔 정혜림이다

11일 세계육상선수권 여자 100m 허들서 한국新 도전

‘허들공주’ 정혜림(30·광주광역시청·사진)이 10개의 허들을 넘어 12초대 진입에 도전한다.

정혜림은 11일 오후 6시 45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 여자 100m 허들 예선에 나선다.

그는 힘겹게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다. 정혜림은 런던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12초98)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7월 9일 인도 부바네스워르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3초16으로 우승해 ‘특별별 육상선수권 우승자’가 받는 티켓을 손에 넣었다.

한국 여자 선수 중 유일하게 이번 세계선수권 트랙&필드 종목에 참가한다. 그에게는 2011년 대구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세계선수권이다.

목표는 한국신기록이다. 여자 100m 허들 한국기록은 2010년 이연경이 작성한 13초00이다.

정혜림은 2016년 6월 고성통일전국실업대회에서 13초04로 역대 한국 선수 2위 기록을 세웠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상에 입문한 정혜림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100m허들을 주종목으로 삼았다. 부산 체고 2학년 때 처음 대표팀에 뽑혀 이연경과

함께 여러 국제대회를 치렀다. 이연경이 지목한 ‘후계자’로, 한국신기록 달성도 기대했다. 하지만 정혜림은 아직 이연경의 기록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기록이 상승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정혜림은 2016년과 올해 7차례나 13초1대에 결승선을 통과했고, 한 차례 13초0대를 뚫었다. 허들 기술이 향상됐고, 근육량이 늘어 지구력도 좋아졌다는 평가다.

열 번의 허들을 실수 없이 넘으면 한국신기록이 보인다. 빼어난 외모와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실력으로 ‘허들공주’로 불린 정혜림이 13초 벽을 넘고자 출발선에 선다. /연합뉴스